

# 올 시즌 전국 초·중·고교 축구 '기지개'

### 내일부터 탐라기 전국중학축구대회 등 키오프 도내 학교·클럽 팀 전력보강 바탕 일제히 출격

제주지역 초·중·고교 학교 및 클럽 축구팀들이 2023년 새 시즌을 맞아 본격 출격한다. 각 팀들이 신입생들을 받아들여 겨울철 훈련이 한창인 가운데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팀들과 첫 대면을 하는 대회가 제주를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펼쳐지기 때문이다.

5일 대한축구협회 등에 따르면 7일부터 제주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24회 탐라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2월 한 달 간 초·중·고교 축구대회가 개최된다.

우선 오는 18일까지 치러지는 탐라기대회에는 대회 첫날 오현중과 제주제일중, 제주탐라FC, 제주위너FC 등이 부산기장중SC를 포함한 부산덕천SC, 경기백마중, 부산해운대구FC 등과 대결하게 된다. 지난해 제주리그 1위 팀인 제주중앙중은 8일 첫 시합에 나선다. 상대는 경기 총의중이다. 지난 시즌 성적을 바탕으로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전력대회를 향한 각 팀의 탐색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는 고등부가 첫 선을 보인다. 이날부터 26일까지 경남 양산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54회 부산MBC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엔 서귀포고와 대기고가 출사표를 던졌다. 서귀포고는 대회 첫날 서울중앙고와 대기고는 경남 경남 진주시 일원에서 시작되는 제4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에는 제주유나이티드U18이 중추상고를 상대로 첫 경기를 치른다.

또 14일부터 27일까지 전남 광양시에서 개최되는 제24회 백운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에는 서귀포축구센터와 제주제일고가 참가해 전

력을 점검하게 된다. 제주중앙고는 전력보강을 토대로 3월 이후를 기약하며 이번 동계대회에는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꿈나무들도 본격적으로 기량점검에 나선다.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서귀포시 일원에서 열리는 2023 서귀포시 칠십리 춘계유소년축구페스티벌이 그 첫 무대이다. 도내에서는 12개팀이 나서 기량을 점검받게 된다.

한편 여자축구대회 역시 본격적으로 전개될 예정이어서 모든 팀들이 올해 농사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첫 분수령으로 보고 2월 한달간 총력을 쏟아 부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선닷컴 기자 sycho@ihalla.com

## 최상호, 최고령 우승·대상 등 '3관왕'

### 역대 KPGA 코리아투어 기록 제주 임성재는 최연소 출신원 김대섭 아마추어 최연소 우승

역대 KPGA 코리아투어에서 탄생한 최고령과 최연소 기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4일 KPGA(한국프로골프협회)에 따르면 KPGA 코리아투어에서 최고령 우승의 주인공은 최상호(68)이다. 최상호는 2005년 5월 29일 KT&G 매경오픈에서 50세 4개월 25일의 나이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최상호는 최고령 컷통과 기록도 갖고 있다. 최상호는 62세 4개월 1일의 나이였던 2017년 5월 5일 제36회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컷을 통과했다. 최연소 컷통과는 2022년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에서 13세 3개월 19일의 나이로 컷통과에 성공한 안성현(14·A)이다. 안성현은 지난해 개막전 제17회 DB손해보험 오픈에 12세 11개월 16일의 나이로 출전하며 역대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최연소 우승은 김주형(21·나이키)이 달성했다. 김주형은 2020년 KPGA 군산CC 오픈에서 18세 21일의 나이로 투어 첫 승을 신고했다. 김주형은 KPGA 군산CC 오픈

우승 이후 이듬해인 2021년 18세 11개월 22일의 나이로 SK텔레콤 오픈에서 우승하며 역대 최연소 통산 2승을 이뤄 내기도 했다.

아마추어 최연소 우승 기록은 1998년 9월 20일 코오롱배 제41회 한국오픈에서 17세 2개월 20일의 나이로 우승한 제주출신 김대섭(42)이 수립했다.

최고령 출신원은 2016년 4월 21일 대우 몽베르CC에서 열린 제12회 동부화재 프로미 오픈 1라운드 17번홀에서 51세 7개월 17일의 나이로 출신원을 만들어낸 '부산 갈매기' 신용진(59)이다. 최연소 출신원은 그 해 파미힐스CC에서 펼쳐진 DGB금융그룹 대구경북오픈 최종라운드 8번홀에서 18세 6개월 23일의 나이로 출신원을 작성한 제주출신 대한민국 골프 간판인 임성재(25·CJ대한통운)다.

최고령 대상 수상자는 1995년 대상을 차지한 최상호로 당시 나이는 40세 9개월 25일이었다. 2021년 10대 최초로 제네시스 대상을 품에 안은 김주형이 19세 4개월 17일의 나이로 최연소 대상 수상자로 이름을 남기고 있다. 최고령 신인왕은 2020년 35세 16일의 나이로 '가스텔바작 신인상(명출상)'을 거머쥔 이원준(38·웹캐시 그룹)이다. 조선닷컴 기자

## 신진서 9단, 단일기전 최다 36연승 '끝'

### 2022-2023 KB국민은행 바둑리그 난가리그 3R 원성진 9단과 에이스결정전 249수 만에 불계패



튜디오에서 열린 제41기 KBS바둑왕전 4강에서 변상일 9단에 163수 만에 흑 불계승하며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성동구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로 옮겨 바둑리그 키스의 선봉으로 나서 포스코컴백 박민규 8단에게 176수 만에 백 불계승하며 바둑리그 연승 행진을 36연승으로 늘렸다.

한국바둑 랭킹 1위 신진서(사진·23) 9단의 국내 단일기전 최다연승이 36연승에서 멈췄다.

5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3일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2022-2023 KB국민은행 바둑리그 난가리그 3라운드 3경기 에이스 결정전에서 키스(Kixx)의 신진서 9단이 포스코컴백의 원성진 9단에게 249수 만에 백 불계패했다.

이로써 신진서 9단은 2021년 3월 27일 바둑리그 챔피언결정전 2차전에서 신민준 9단을 꺾고 이어오던 연승 행진을 678일 만에 마감했다.

신진서 9단은 앞서 이날 오후 1시 열린 서울 여의도 KBS신관스

튜디오에서 열린 제41기 KBS바둑왕전 4강에서 변상일 9단에 163수 만에 흑 불계승하며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성동구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로 옮겨 바둑리그 키스의 선봉으로 나서 포스코컴백 박민규 8단에게 176수 만에 백 불계승하며 바둑리그 연승 행진을 36연승으로 늘렸다.

그러나 키스의 승리가 유력했던 경기에서 포스코컴백의 원성진 9단이 키스 박진솔 9단에게 역전승하며 승부를 2-2로 돌리놓았고, 신진서 9단의 하루 3경기 출전이 결정되고 말았다.

에이스 결정전에는 예상대로 양팀 주장 신진서 9단과 원성진 9단이 출격했다. 결과는 하루 공식대국을 3경기나 두면서 집중력과 체력이 마지막에 소진된 신진서의 패배로 끝났다.

이번 시즌 바둑리그 7연승 후 첫 패점이었고 신진서의 바둑리그 36연승 행진도 마감되고 말았다. 조선닷컴 기자



“황소의 환호” 5일(한국시간) 영국 울버햄프턴의 울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시즌 EPL 22라운드 리버풀과 홈 경기에서 울버햄프턴의 황희찬이 전반 5분만에 선제골에 관여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날 울버햄프턴은 리버풀에 3-0 완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 프로야구 시범경기 3월 13일 개막

### KBO, 팀당 14경기 편성... 일정 확정

오는 4월1일 2023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을 앞두고 시범경기가 펼쳐진다.

KBO는 2023 KBO 시범경기 일정을 확정, 지난 3일 발표했다. 올해 시범경기는 3월 13일부터 28일까지 팀당 14경기씩 총 70경기가 편성됐다.

시범경기 개막전은 사직(두산 베어스-롯데 자이언츠), 대구(SSG 랜더스-삼성 라이온즈), 창원(LG 트윈스-NC 다이노스), 고척(KT wiz-키움 히어로즈), 대전(KIA 타이거즈-한화 이글스) 5개 구장에서 열린다.

이번 시범경기 일정은 구단별 이동거리와 그라운드 공사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구장(문학: 3월 13일~3월 28일/ 잠실: 3월 13일~3월 24일/ 수원: 3월 13일~19일/ 광주: 3월 13일~16일)을 고려해 편성했다. 시범경기는 소속선수 및 육성선수 출장 가능하며, 출장 선수 인원 제한은 없다. 또 모든 시범경기는 오후 1시에 개시되고 연장전과 더블헤더는 실시하지 않는다. 우천 등으로 취소 경기는 재편성되지 않으며, 비디오 판독은 각 팀당 2회 신청 가능하다(단, 2회 연속 판정 반복 시 1회 추가). 조선닷컴 기자

# 축

## 취 임

CONGRATULATIONS

<b>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b>	<b>지방부이사관</b>	<b>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b>	<b>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장</b>	<b>제주시 연동장</b>	<b>제주시 오라동장</b>	<b>제주시 용담2동장</b>	<b>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장</b>
							
김 애 속	김 미 영	오 효 선	김 영 길	김 성 수	장 옥 영	황 태 훈	한 재 일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조천읍 이장협의회 회장 강연식

신촌리 이장 고구봉	조천리 이장 강연식	신흥리 이장 손유철	함덕리 이장 한명용	북촌리 이장 윤성식	선흘리 이장 부상철
선흘2리 이장 이상영	와산리 이장 고두진	대흘리 이장 이경훈	대흘2리 이장 고임성	와흘리 이장 강익상	교래리 이장 나봉길